

전남에 국내 최초 해상풍력 핵심부품 시험센터 들어선다

내년 정부예산에 '피치·요 베어링 시험센터' 구축 국비 반영
산업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 도약 탄력 등 기대

전남도가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심장으로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해상풍력 발전기의 핵심부품인 피치·요 베어링 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가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로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전남도의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피치·요 베어링 시험센터 구축 사업은 총 250억 원 규모로, 국비 150억 원(60%), 도비 30억 원(12%), 시군비 70억 원(28%)이 투입된다. 시험센터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3300㎡ 부지에 연면적 330㎡ 규모로 조성되며, 구조물·기압



해상풍력 핵심부품 시험센터-피치·요 베어링 센터 조감도

장치·계측장치 등 첨단 시험 설비와 R·D·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함께 구축된다. 피치·요 베어링은 대형 해상풍력 터빈

의 블레이드 각도를 조절하는 핵심부품으로, 발전효율과 안정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상풍력 터빈 용량은 2010년대 8MW, 2020년대 12MW, 최근에는 15MW 이상 초대형화되는 등 급속하게 커짐에 따라 관련 부품도 높은 수준의 내구성 및 인증시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검증할 시설이 전무해 기업에서는 장기간 고비용을 들여 유럽까지 가서 시험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향후 센터구축이 완료되면 국내 부품 제조기업들이 해외까지 가지 않고 국내에서 자체 시험·인증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

돼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절감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망이다. 또한 기자재 생산-시험-인증-수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관련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내 해상풍력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남도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기획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시험센터와 착공예정인 해상풍력 대규모 발전단지와의 연계해 기자재 자체 시험·인증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



무등산 정상에서 펼쳐진 국가시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기원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9월 지황봉 앞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기창 서구청장 및 시민들이 국가시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도, 중소기업 AI 대전환 본격 시동

중기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비 140억 포함 233억 투입

전남도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길 'AI 대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2년간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한 총 233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자체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I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생산성 증대 → 고용 창출 →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남도는 주관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카카오프라이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국립순천대학교·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이를 통해 AI 솔루션 도입·확산, AI 인프라 구축, 현장형 인재 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전남의 주력산업인 소재·부품, 에너지, 바이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 수준 진단 → 맞춤형 솔루션 개발·보급 과정을 지원한다. 동시에 그래픽처리장치

(GPU) 서버를 갖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ICT 기업이 AI 솔루션 공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 대학·연구소와 협력해 기업 대표, 재직자,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노린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 중소기업들이 AI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이 다른 연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행정절차 돌입

'5극3특' 균형발전 1호모델 출범 시동...규약안 행정예고
연내 출범 목표...산업·교통·관광 등 10대 공동사무 추진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첫 번째 실천모델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균형발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호남권이 선도하게 된 것이다. 9월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 하고, 연내 출범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비전 선포식, 9월 추진단 구성에 이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규약안에는 특별광역연합의 설립 목적, 운영 구조, 재정체제와 함께 320만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10대 공동사무

부가 담겼다. 핵심 내용은 △초광역 산업 선도 △주력산업 연계 육성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초광역 지역혁신체계 구축 △초광역 교통망 구축 △광역철도 건설·운영 △지역문화 진흥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이다. 두 시·도는 공동 사무 추진을 통해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울경 등 5개 초광역권(5극)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3특)를 축으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사실상 전국 1호 모델로 출범하는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는 이메일·팩스 등 다양한 경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연내 공식 출범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출범 이후에는 산업·교통·문화 등 주민 체감형 초광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국가균형발전의 표준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대등적 차원에서 합의해 현 정부의 첫 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이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호남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됐다"며 "광주·전남이 한목소리로 상생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2년 연속 전국 1위

'더 따뜻한 전남' 실현 앞장...누적 74억·5만 건 돌파

전남도가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더 따뜻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누적 모금액은 5만2990건, 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8% 늘었다. 단순 수치 이상의 성과로, 지역과 출향민·기업이 함께 만든 신뢰와 참여의 결과라는 평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30% 이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제도 시행 전부터 전담 조직을 꾸리고 조례 제정, 답례품 발굴, 홍보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기부금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마을 공동 빨래방, △곡성군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프로젝트, △영암군 '맘 안심 프로젝트' 등은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장학 사업과 어르신 돌봄, 문화예술 지원 등도 꾸준히 확산되며 기부가 곧 주민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눈길을 끈다. 전국 향우회와 59만 명 규모의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정기 홍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축제·행사 홍보판과 온라인 캠페인을 병행해 기부 참여 저변을 넓히고 있다. 답례품 역시 전국 최다 수준인 320여 종

을 마련했다. 신선 농수축산물, 전통 가공식품, 강진청자·낙죽 은장도 같은 공예품, 체험형 관광상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였다. 이는 단순한 보답을 넘어 지역 농어민·기업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도 있다. 오는 12월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답례품 외에 '남도김치'를 추가 증정해 기부자와의 따뜻한 소통을 이어간다. 전남도의 성과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확인됐다. 2024년 담양·영암·원도에 이어 올해는 곡성군이 대상, 전남도가 우수상, 장성군이 장려상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하어로 슈퍼책과 함께 놀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